

천 엔 지폐의 도안으로 채택된 후지산의 풍경 - 오카다 고요의 유명한 사진

현행 천 엔 지폐와 1984 년에 발행된 오천 엔 지폐에는 호수와 숲으로 덮힌 언덕 너머로 후지산이 보이는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. 이는 사진가 오카다 고요(1895~1972)가 1935 년에 모토스코 호수를 촬영한 ‘호반의 봄’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.

니가타현에서 태어난 오카다는 일본 산악 사진의 선구자입니다. 오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후지산을 ‘후지코’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후지산과 그 주변 지역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을 삼았습니다. 후지 5 호 지역을 자주 방문해 사랑해 마지 않던 피사체의 새로운 얼굴을 찾아 숲이나 언덕을 산책하는 오카다의 모습은 지역에서도 유명해져서 오카다는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.

오카다 고요 미술관은 오카다가 21 세 때 처음으로 후지산에 마음을 빼앗겼던 오시노무라(마을)에서 2004 년 개관했습니다. 오시노무라에 있는 8 곳의 용수지를 뜻하는 오시노 핫카이 너머로 저멀리 후지산이 바라보이는 사진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오카다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.

오카다의 발자취를 더듬다

오카다가 촬영한 사진 ‘호반의 봄’으로 유명세를 얻은 풍경은 지금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. 이 장소는 모토스코 호수의 북서쪽에 있으며 ‘천 엔 지폐 속의 후지산 전망대’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호숫가에서 등산로로 들어가 1km, 약 30 분을 걸으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이 등산로는 험준하고 가파른 절벽 몇 곳을 올라야 하지만 전망대에서 보이는 최고로 아름다운 후지산의 모습은 등산의 피로를 말끔히 잊게 합니다.